“거리두기 단계 격상 고민… 경각심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 방역동참 호소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많아
상황 엄중히 인식… 총력 대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최근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며 “도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발표를 통해 “지난 7일부터 10일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서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순천에서 지난 7일부터 총 20명이 확진됐다. 신한은행 지점에서 시작해 은행직원과 가족, 방문객으로 전파돼 9명이 양성 판정됐으며, 아구마을 식당과 워터피아 헬스장·사우나 등에서 11명이 추가됐다.

전남도는 순천시 사우나·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영업제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광양시의 경우 성광기업 근무 여성 확진자에 의해 동료·가족이 감염됐으며, 이어 쇼핑센터 종사자, 관련기업 및 퀵서비스 종사자, 식당·카페·미용실 등 n차 감염이 이뤄져 총 37명이 확진됐다.

화순군에선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가 최초 확진된 후 배우자·자녀·직장동료 등 4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총 28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확진자 발생지역에서 역학조사 공동협력 전담팀을 운영하고 중앙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감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순천·광양·여수시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하고, 모임·행사 시 참여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권장했다.

또 50㎡이상 식당·카페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확진 사례의 공통점은 의심증상을 감기라고 생각해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추가 확산이 되는 것“이라며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증상 시 무료인 진단검사를 즉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n차 감염 우려에 따라 도민 스스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 연말 송년회 등 사적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기업체·사업장은 직원 중 감기증상 시 유급휴가를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순창군

신규공무원 적응 소양교육

순창군은 16일 행복누리센터 교육장에서 올해 공직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기획, 예산, 공무원의 의무·금지사항, 인사, 복무 및 문서작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며, 각 실무분야 담당계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이론부터 실무까지 체계적 교육에 나선다.

/전남=강성대 기자

울진군

삼율교 개체사업 완료

울진군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한 후포면사무소 앞 삼율교 개체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후포 도시계획도로 2-12호선에 위치한 삼율교 개체사업은 연장 46m, 폭 11m 규모의 2차로 교량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해 2019년 12월에 착공,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울진(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부산시, 건설심의 운영체계 통합

건설기술발전·신뢰성 도모

글로벌도시 경쟁력 위한 업무 강화
내년부터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부산시는 내년부터 산하 공사에서 자체 운영 중인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가치공학)도 부산시가 일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경제성 및 공사 시행 적정성 제고를 위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설계용역 2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는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 VE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심의기능이 시와 공사로 이원화돼 변화하는 정부정책과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도시계획, 도로계획, 하수계획 등)을 감안한 심의 운영에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이원화된 심의 운영체계를 2021년부터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공사 시행 과정의 질적 향상 등 부산시 건설기술 발전과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VE도 부산시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부산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계·시공 수준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여수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에 7억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충

여수시가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17개소에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

오는 12월까지 6억 원을 들여 쌍봉초등학교 등 2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신호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을 완료한다.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무인단속장비

노란신호등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저속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담양군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담양군이 2020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역사회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에게 음주폐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지역사회건강통계 결과 담양군 월간음주율은 2016년도 45.4%에서 2018년도 4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도 2018년도 24.8%에서 2019년도 18.7%로 전년도 대비 6.1% 낮아졌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화순군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99% 만족”

응답자 99%, 사업 재참여 의향

화순군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36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203명 중 99.6%(4188명)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 응답자는 없었다. 높은 만족도는 ‘사업 재참여’ 응답률로 이어졌다.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99.9%인 4201명이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단 2명만 건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자리 참여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87.2%가 생활비(58.1%)나 용돈(29.1%) 마련을 위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사업

이번 조사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고령층의 소득 불안정 완화와 함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참여를 통해 가장 크게 느꼈던 효과’로 62.8%가 ‘경제적 도움’을 꼽았고 25.4%는 신체적 건강 증진과 개선, 10.2%는 대인 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군은 올해 약 165억을 투입해 경로당 급식도우미, 노-노케어, 근린생활관리, 학교급식 등 15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영암군 감성을 기르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재개로 영암도기박물관 교육·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

영암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재개

영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맞춰 운영을 재개한다.

16일 영암도기박물관에 따르면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과 ‘한국도자명품전 전시연계프로그램’을 각각 관내 초·중학생 대상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은 11월 말까지 11개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자명품전 전시연계프로그램은 관내 학교 학급단위 전시관람객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전남농협

김장철 대비 식품안전 점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를 ‘김장철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안전한 김장재료 공급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관내 산지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김치가공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양념류 5개 품목을 원산지관리,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전남=강성대 기자